

[보도자료] 쿠팡 CPLB, 중소 농산물 협력사와 ‘품질 설명회’ “신선·안전한 먹거리 협력 강화”

2026. 10. 28.



씨피엘비가 지난 27일 쿠팡 구의 오피스에서 중소 채소·과일 협력사 81개사를 초청해 ‘2026년 공급사 농산물 품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중소 채소·과일 협력사 81개사 초청, 품질관리·운영 노하우 공유
- 계절별 품질관리 방안 집중 논의.. 중소 파트너사 품질 경쟁력 제고

2026.10.28 서울 -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담당 계열사 씨피엘비(CPLB)가 전국의 중소 농산물 협력사들과 품질 설명회를 열고,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씨피엘비는 지난 27일 쿠팡 구의 오피스에서 중소 채소·과일 협력사 81개사를 초청해 ‘2026년 공급사 농산물 품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설명회는 씨비엘비가 중소 협력사들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해 협력을 다지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는 기존 및 신규 PB농산물 공급사 관계자 105명과 씨피엘비 임직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씨피엘비는 이 자리에서 협력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 경험과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계절별 농산물 품질관리 방안 ▲고객 의견 기반 품질 개선 사례 ▲품질 이슈 예방 및 대응 사례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씨피엘비가 지난 27일 쿠팡 구의 오피스에서 중소 채소·과일 협력사 81개사를 초청해 '2026년 공급사 농산물 품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계절과 기후 변화에 민감한 신선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시기별 주요 품질 이슈와 실제 운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의 상품 경쟁력과 고객 만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으로 품질 관련 이슈에 원활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우수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한 우농영농조합법인과 (주)나들농업회사법인 등 2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솔라이 삭티벨 씨피엘비 전무와 이광희 (주)나들농업회사법인 대표, 이대영 우농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광희 (주)나들농업회사법인 대표는 “쿠팡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넓혀가며 매출이 50%이상 성장하는 등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 더욱 좋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이 삭티벨 씨피엘비 전무는 “고객에게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중소 파트너사들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씨피엘비 파트너사 10곳 중 9곳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판매 상품 품목 수는 수만개이며, 이들은 최근까지 쿠팡 PB상품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씨피엘비는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동반성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